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17, 타협된 충실함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이번 세션은 17회, 타협된 충실함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를 남북 간의 직접적인 전쟁을 피한 왕,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 온 이스라엘을 위해 바라셨던 이상을 참으로 이해한 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전쟁을 회피하는 것은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비야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사왕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을 많이 보존하고 모든 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는 그를 타협된 왕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이며,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사와 사실상 그의 전 생애 동안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회복한 벤엘 성은 남북 경계를 두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사의 좋은 부분과 그의 통치의 긍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어떤 종류의 혼합주의, 어떤 종류의 타협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대체 상징, 즉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표현하기를 바라셨던 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타협도 재앙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 중 하나는 산당에서의 예배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벤엘과 단에 두 개의 산당을 세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치하에서도 이 산당에서의 숭배는 명시적으로 바알 숭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이곳을 야훼를 숭배하는 대체 장소로 제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단지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곳의 성전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정치적 야망이 타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벤엘과 단에 산당을 세웠고, 벤엘과 단에 예배를 위한 산당을 세우면서 바알 상징, 특히 송아지와 아세라라고 불리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아세라는 성경 용어에서 약간 모호하지만 아세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거의 모든 시간에 의미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번역가들이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아세라는 나무 숲, 살아 있는 나무 숲이었는데, 이 나무, 즉 나무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바알 숭배에서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바알 숭배에서 아세라 역시 여신이었지만, 그녀를 생명의 수여자로 대표하는 것은 나무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의 제단을 제거하러 갔을 때 모든 나무를 베어 버린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아세라였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바알의 상징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채택하고 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화적 침투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때 그것들이 다르거나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관성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연대기 작성자의 경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표현되는 장소는 단 한 곳밖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합법적인 예배 장소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것을 이해했고, 물론 유다를 언급하면서 이 외국 예배 장소를 제거했습니다.

아사가 통치 초기에 한 또 다른 일은 유대의 모든 성읍을 요새화하고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것이었습니다. 연대기 작가와 전쟁에 대한 그의 태도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벌이는 다윗 이외의 곳에서, 연대기 기자가 보고하는 전쟁은 방어 전쟁입니다.

그는 항상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왕을 하나님께서 이 왕의 통치를 존중하시고 이 왕을 축복하시는 표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항상 흥미로운 점은 연대기 작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대규모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군대는 항상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은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 왕의 편에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유대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대기는 대규모 군대를 승인합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사가 있고 그는 세라를 이겼습니다. 이것은 누비아 군대입니다.

누비아는 이집트의 최남단 지역이다. 이 군대는 아마도 이집트의 지휘하에 있었을 것이며 이집트인들이 블레셋 지역에서 사용하던 이집트 군대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가 아사에 대한 승리에 대해 보고하는 것처럼, 그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그는 아사의 대규모 군대나 그들의 전문성과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아사는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통치는 다른 선지자에 의해 계속됩니다. 이 선지자는 15장에서 부흥을 부르시는 아사라입니다. 이 짧은 연설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고난의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많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아마도 그는 아마도 사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설교이다. 그리고 아사라는 아사에게 당신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호의를 받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아사는 언약 갱신과 큰 축하 행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역대기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은 이 부흥에 북방 지파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달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유대인의 달력에 따른 칠칠절이 될 것입니다. 유대력에는 세 가지 주요 절기가 있었습니다. 한 해는 항상 한 해의 시작인 유월절로 시작되었고, 그 후 7주 후에는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곱째 달에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가을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종종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주 언급되지 않는 절기, 추수의 시작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는 칠일절이기도 하고 칠칠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사는 사물을 정결하게 하는 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표기법 중 하나는 태후의 제거입니다. 이제 태후는 북방과 연줄을 갖고 유다 승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이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여성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따라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매우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아사의 통치의 끝은 실제로 그의 전체 통치의 특징이었던 것으로 되돌아옵니다.

여기에 역대기의 수수께끼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대기 기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몇 가지 수수께끼를 남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대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연대기 작성자의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대기 기자가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은 바아사와의 전쟁인데, 그는 이 전쟁이 제35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아사의 오랜 통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대기와 연대를 살펴보면, 바아사는 아사 통치 제25년쯤에 이스라엘 왕이기를 그쳤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적어도 10년 전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건은 그의 통치 15년이나 16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35년은 아사의 통치가 시작된 해가 아니라 르호보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왕국이 분열되는 해를 가리키는 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대기 측면에서 확실히 작동합니다.

연대기 저자의 신학 측면에서는 연대기 저자가 자신의 신학과 상관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실패나 죄와 함께 임합니다. 그리고 바아사와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분명히 심판인데, 이는 아사가 죽은 방식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아사가 발에 병이 나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의 이 표기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사의 실패,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라를 대적한 이전 시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설교는 때때로 레위인의 설교로 불리기도 하는데, 아마도 레위인이 설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언약을 의지해야 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사에게 동맹의 위험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대와 다른 세력에 의존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가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반응은 하나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최후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바아사와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Kings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사와 바아사는 아사의 시대 내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남한과 싸우는 실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아비야의 이상은 언제나 실현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아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사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때때로 향신료 불이라고 부르는 것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의 매장에는 향기가 나는 향료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매우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명예롭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사는 특히 혼합주의와 유다의 정결을 피하는 면에서 선한 일과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왕 중 한 사람의 연대기 작가의 예입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를 의지하고 동맹을 의지하므로 결국 바아사와의 비참한 전쟁에 이르게 되고 결국 심판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연대기 작가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방법을 모른다면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l입니다. 이번 세션은 17회, 타협된 충실함입니다.